

격월간 1998년 10월 10일 · 동권 13호 · 고용평등추진본부 발행 · 1996년 9월 20일 등록 · 등록번호 마2617

평등

제13호

1998년 9 · 10월

특집 직장내 성폭력 84.0%, 비상구를 찾아라!

기획 여성의 눈으로 본 신문세상

역사 속의 그 여자 벨라 압주그

평등의 대화 김송자 서울지방노동위원장

현미경 군복무 3중 혜택,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평등

제13호 1998년 9·10월

신문모니터위원회 4

김주희, 김정민 10

백수란 12

이인숙 14

16

18

서민자 19

서민자 22

이임혜경 24

윤취운선 26

고용평등추진본부 28

하인호 30

서상욱 33

윤취운선 34

배수원 37

조수연 38

최용희 40

김희정 42

박정옥 44

박봉정숙 46

함경숙 47

48

배수원 50

기획 여성의 눈으로 본 신문세상

신문에 '일하는 여성'은 없다! 외

역사 속의 그 여자 채넌은 모자의 여인 벨라 압주그

우리 또 같이 KBS 여성협회

평등의 대화 김송자 서울지방노동위원장

여성노동뉴스

특집 직장내 성폭력 84.0%, 비상구를 찾아라!

직장내 성폭력 유형과 그 실태

남녀 직장인의 성의식 차이

성폭력없는 일터를 위하여

문학노کم 여자들이 드라마를 '보고 또 보'는 이유?

현미경 군복무 3중 혜택, 무엇이 문제인가?

평등핫이슈 고등학교 직업교육의 제자리 찾기

정보시대 통신공간에서의 '해피 투게더'

생활 속의 여성학 명절, 여자들의 싸움이 벌어지는 격전장인가?

환경에세이 강기자의 환경사랑법?

일터이야기 고용주의 황포에 갇힌 어린 꿈

노동권 보장에 대한 답변은...

'철밥그릇' 공무원 신화는 옛말

학제집중 적극적 실업대책의 하나, 노동자 기업인수

지상발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담노트 실업자대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평등의 눈

평등만화

평등의 창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0년. 옛부터 전해오는 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는 10년이란 시간만큼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까?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았다. 법이라는 뒷배경을 믿고 결혼 임신퇴직을 당당히 거부할 수 있었고 남직원과의 동등한 승진을 요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눈에 띄게 후퇴하는 고용평등 앞에서 '아, 옛날이여!'를 외칠 수밖에 없다니! 13년 직장생활의 마침표가 '강요에 의한 명예퇴직'이라는 참담한 현실이 계속적인 승진차별보다 더 힘들게 다가온다는 한 친구의 비통해하는 모습에서 남녀고용평등법의 지난 10년을 평가해본다.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은 10월 고용평등의 달을 맞아 '여성에 대한 차별해고 등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예방해 여성고용안정과 남녀평등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것이 선언만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스스로 생존권을 사수하자"라는 강제퇴출은행 노동조합의 성명서는 결코 그들만의 외침은 아닐 것이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또 한 번의 시작을 해야 한다.

『평등』·격월간 발행일/1998년 10월 10일
등록일/1996년 9월 20일 등록번호/마2617
발행처/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
발행인/정강자 편집인/송현미
디자인/정태경 사진/조지민
기획·진행/백수란·이인숙·박봉정숙·최명숙
인쇄인/유홍중(삼영칼라)